



연구

# 위험조사의 실태와 전망

- ◇..... 화협은 손보사들의 지원하에 위험조사 업무를 발전시켜 .....◇
- ◇..... 명실공히 국내 손보업계의 기술“풀”역할을 담당함으로 .....◇
- ◇..... 써 국가 방재의 기본목적 달성은 물론 보험산업의 안정 .....◇
- ◇.....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

## 1. 위험조사란 ?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하던 원치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당면하게 되는 것이 위험이다.

흔히 우리는 위험이란 「안전하지 못한 것 또는 「위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보험이나 경영측면에서의 위험은 학자들간에 많은 학설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측정가능한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위험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사람이 가계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당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화재·폭발·도난·사망등 자연과학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의한 「순수위험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위험관리 라고 말한다.

위험관리란 가계, 기업등이 경영상 당면하는 갖가지 순



宋 柱 翔  
점검 1부 차장

수위함을 최자의 비용으로 사전에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방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위험조사는 위험관리를 위한 현장실사활동으로서 건물이나 시설등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파악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일련의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험조사는 건물이나 시설등 보험목적물에 대한 위험의 형태와 크기를 실사하고 그 결과를 정밀분석·평가하여 제반 위험에 상응한 보험의 인수와 적정한 보유를 기할 수 있도록 위험측정 기본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며, 위험관리를 목적으로한 조사·분석·평가활동으로서 기존의 점검업무에 손해보험분야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실시배경 및 목적

경제규모의 팽창에 따라 산업규모가 커짐으로써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담보위험이 점차 거대화 되고 재해로 인한 손실이 대형화되어감에 따라 위험의 선택 및 인수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적절한 처리를 위한 위험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위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보험의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보유액 결정의 과학화를 위험관리 위주의 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유도하여 보험산업을 안정발전시킴은 물론 위험제거 및 경감대책의 조기 제공으로 계약자들을 적극 보호해야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4월 26일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 손보사는 위험관리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켜 보유규정을 강화하고 위험측정을 실시하여 이에 상응한 적정보유를 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1년 1월 13일자 재무부장관 지시인 「손보사 위험관리제도 개선작업결과 환용추구에 의거 위험관리위주의 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동년 1월 30일 그 당시 화재보험업무 감사회사인 제일사로부터 당협회에 고액부동산의 위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송부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받았다.

한편으로 동년 3월 5일 내부부장관 지시에 의거 전국의 대형기간산업제동에 대한 정밀화재예방점검을 당협회에서 실시하여 적정 방재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라

**“위험조사는 재해의 예방으로 막대한 국가재산을 재난으로 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점검업무에 보험 분야를 적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위험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기술의 과학화를 촉진하여 보험산업을 안정 발전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당협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1975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대형공장물건등에 대하여 방재측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온 기존의 특별 점검업무에 손해보험분야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액부동산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조사·분석 및 평가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위험에 상응한 보험인수와 적정보유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위험조사를 시도하게 되었다.

위험조사는 재해의 예방으로 막대한 국가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점검업무에 보험분야를 적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위험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기술의 과학화를 촉진하여 보험산업을 합리적으로 안정 발전시키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동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 가. 국가방재정책 측면

위험조사는 건물과 설비, 생산시설, 위험물과 기타 수용동산등에 잠재되어 있는 화재발생 위험과 연소확대 위험을 관련된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반 방재상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방재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환용함으로써 방재기술의 향상을 통해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국가재산의 피해를 적극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그 첫째 목적인 것이다.

### 나. 보험산업안정발전 측면

위험조사는 「화보법」에 의거, 당협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서용등 전국 7개도시에 소재하는 물건은 물론 그 외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공장물건등 고액

“당 협회에서는 「위험관리」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 연간 350건 정도의 위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 풀 해체로 인한 예산 감소등으로 동업무 발전이 앞으로 상당히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부보물건에 대해서도 위험의 형태와 크기 및 위험도등을 현장실사하여 측정하고, 이와같이 측정된 위험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상응한 보험의 인수와 적정보유 및 위험 분산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보험기술의 과학화와 위험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보험산업의 안정발전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두번째 목적이다.

#### 다. 대소유자 서비스 측면

위험조사는 대규모 산업체등의 소유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폭발 및 기타의 위험을 조사발견하여 사전에 재해발생원인을 제거하고,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공하며, 보험계약에 대한 사항과 특별담보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다.

### 3. 실태

#### 가. 원수사등의 동향

최근들어 손보업계에서는 산업시설등의 대형화에 따라 담보위험이 거대화되고 있어, 고액부보물건에 대한 과학적인 보험인수 및 보유를 위한 위험관리 필요성의 인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일례로서 국내의 일부 원수사와 재보사에서 자체보유 물건의 위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A사의 경우 79년도에 위험관리과를 신설하고 5명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연간 수십건씩의 자사 계약 물건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J사에서도 '83년도에 2명의 인력으로 위험관리팀을 설치하고 관련물건에 대하여 실사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2개사의 경우도 자사관련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만 위험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한것 같다.

나머지 10개사의 경우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으나 전문기술인력 확보문제등 제반 여건의 미비로 현장실사를 통한 위험관리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때 국내 원수사등의 위험관리는 그 필요성만 인지하고 있을뿐 현실적으로 전무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 나. 화협 위험조사

전술한 바와 같이 당협회에서는 관계기관 및 손보업계의 요청에 의거, '81년도부터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간 10년간 축적된 방재기술에 보험분야를 적용한 위험조사를 시도하게 되었다.

위험조사는 원수사에서 조사요청한 물건과 당협회 자체에서 선정한 대규모공장등 고액부보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연평균 특수건물 170건, 비특수건물 180건, 계 350건 정도를 실시하여 왔다.

화협 위험조사 실적

구분 \ 년도	81	82	83	84	계	비 고
특수건물	122	144	190	203	659	조사대상은 보험금액 10억 이상의 고액 부보 물건임
비특수건물	282	201	86	155	724	
계	404	345	276	358	1383	

위험조사 결과는 매년 종합분석·평가하여 국가방재 및 보험정책에 참고토록 유관기관과 보험단체등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는 82년도까지는 해당원수사에 부분적으로 제공하였으나, 83년도부터는 요청건수 전부를 적기에 제공하여 위험의 적정인수 및 보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각사별 위험조사서 요청실적을 보면 83년에 총 552건에 불과하였으나 84년도에는 3,639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6배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진적인 부보물건의 거대화에 따라 현장실사결과를 기초로 한 과학적인 위험인수 및 보유등 위험관리위주의 업무수행 필요성 증대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 위험조사서 요청 및 제공실적

구분 각사별	각 사 요 청 건 수			화 협 제 공 건 수		
	'83	'84	계	'83	'84	계
농양화재해상보험(주)	56	319	375	43	309	352
신농아화재해상보험(주)	-	348	348	-	335	335
대한화재해상보험(주)	40	410	450	32	389	421
국제화재해상보험(주)	42	287	329	36	287	323
고려화재해상보험(주)	10	297	307	7	295	302
세인화재해상보험(주)	148	313	461	128	309	437
해동화재해상보험(주)	102	287	389	94	287	381
안국화재해상보험(주)	124	327	451	110	322	432
동방화재해상보험(주)	10	287	297	6	287	293
법한화재해상보험(주)	-	287	287	-	287	287
사 농 차 보 협 수	-	190	190	-	178	178
새 보 협 수	20	287	307	15	287	302
계	552	3,639	4,191	471	3,572	4,043

### 4. 실태검토

국내의 전체 원수 및 재보사중 2개사에서 일부 자사관련물건의 위험관리를 위한 실사를 부분적으로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실적면에서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원수각사 동향으로 보아 위험관리위주의 경영체제 필요성 인식은 점차 고조되어 있는 추세로 보이나 전문인력 확보문제등 제반 여건의 미흡으로 사실상 현장실사를 통한 위험관리업무 추진은 당분간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회회에서 83, 84 2년간 원수사 및 재보사 실무자를 초치, 위험조사 업무협의를 개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각 원수사의 여건상 전문기술인력의 현장실사는 무리이므로 화협이 현행 위험조사업무를 역점사업으로 발전시켜 국내 손보업계의 위험관리를 이끌어 가는 기술풀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화협의 위험조사 업무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원수각사의 계약인수와 보유업무는 물론 재보험 업무를 도와 줌으로써 국내보유를 향상시키고 보험의 국제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회회에서는 이러한 「위험관리」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 연간 350건정도의 위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불해제로 인한 예산감소등으로 동업무 발전이 앞으로 상당히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위험조사업무 발전을 위한 정보수집, 해외연수 및 연구활동의 미비로 위험조사 인력이 전문화되지 않고

“위험관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재업무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은 물론 인재의 양성 확보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있으며, 조사방법도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상태로 위험조사업무가 담보할 경우 위험관리의 조기정착을 통한 방재목적 달성 및 보험의 과학화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 5. 전망

부보물건의 과학적인 위험조사없이 보험을 인수할 경우 선진국과의 보험기술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험은 수리학적인 바탕, 복잡하고도 깊은 기술적인 최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 위험조사와 호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화협은 이 부분을 어느정도 접근시켜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방재기술의 보험적용면에 있어 초기단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조사기술의 축적에 수준높은 위험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방재업무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은 물론 인재의 양성·확보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화협의 여러가지 여건상 위험조사업무에 대한 투자증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차체에 원수각사의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보다 수준높은 위험조사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와같이 될 경우 앞으로 국내 손보업계는 방재기술이 뒷받침된 과학적인 보험업무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보유결정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보험경영의 효율화는 물론 해외출수재 역조현상도 단계적으로 개선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명실공히 화협이 국내손보업계의 기술풀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방재 목적달성은 물론 보험기술의 과학화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